



2011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요약본) 1

# 중국경제 바로알기

- 중국경제 위상 변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Action Plan-

국회의원 **김성식**(서울 관악 甲 / 한나라당)

\*본 자료는 9.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를 위한 요약본이며  
전문(全文)은 본 의원의 『2011년 국감정책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 2008/2011 쇼크와 3D(Depression, Downgrade, Default)불안 속에서,

- 기존의 강자들이 위기 속을 헤매는 가운데 발흥하는 중국
- 안전자산에 대한 요구로 달리는 일시적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약세 추세
-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외교역정책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역량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중국변수, 이제 한국 경제의 기회 및 리스크 관리의 Key

- (1) 홍콩달러 Peg 의 선제적 해체 가능성,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글로벌 화폐전쟁(Global Currency War) 의 정중앙에 위안화(RMB)가 있고,
- (2)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와 애증관계 한 가운데에 중국 제조업체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 (3) Global 구매력 감소를 상쇄할 신규 구매력의 한 가운데에 중국 중산층이 존재.

# 현대 중국경제의 4대 Key Word

## 글로벌 경제패권 지각변동

- 구대륙(유럽)/신대륙(미국)의 총체적 위축과 중국의 성장세 (20년간 10% 이상)
- 구패권이 가진 재정-통화-환율 공학적 치유책의 한계
- 경제패권 지각변동의 중심에 서있는 中國

## 위안화(RMB)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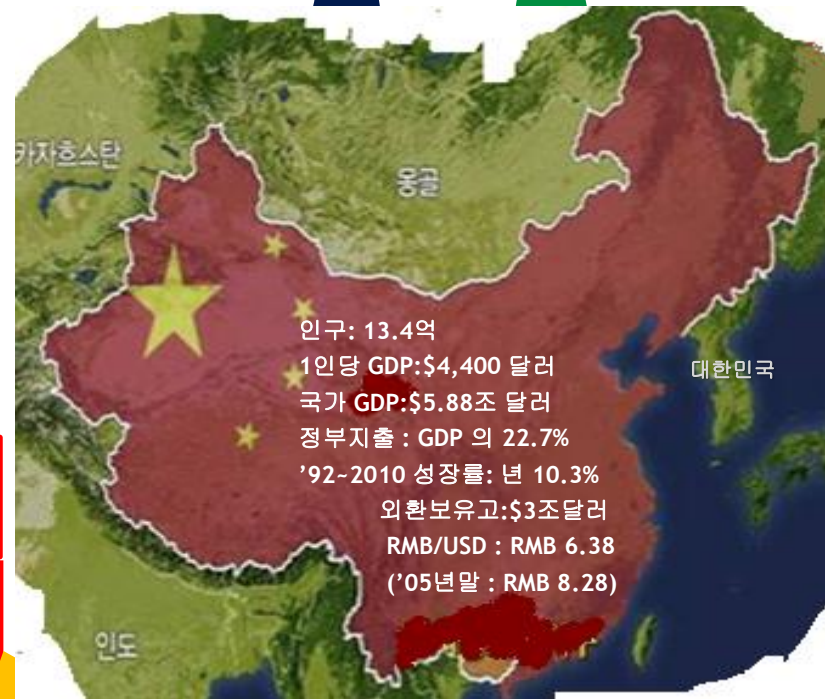
- RMB 무역결제 활성화
- RMB 역외 Hub 구축(홍콩-싱가폴-런던)
- RMB 경제권 구축(아프리카, 남미, ASEAN), 중국의 대외투자 가속화
- 단계적/점진적 RMB 국제화

## 서부대개발(수출->내수)

- 낙후지역 균형발전 및 내수진작책의 일석이조
- 무역수지에 따른 RMB 절상압력과 통화증발의 간접적 상쇄
- 선진국의 구매력 감소전망과 함께 수출의존형 성장모델 탈피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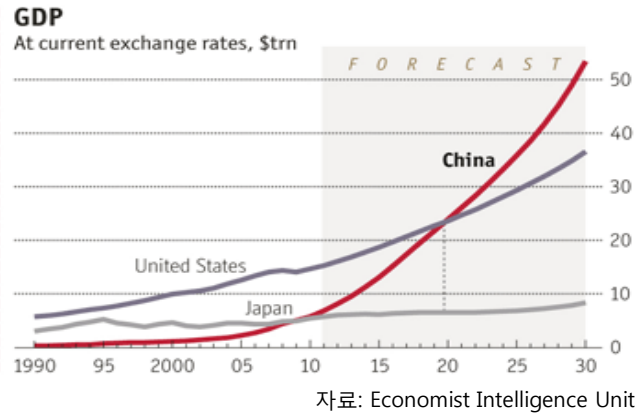
## 도전받는 중국신화

- 고속성장시대의 종결
- 인플레이션 및 고임금
- 누적되는 부동산 버블
- 지방재정 부실화
-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



# 떠오르는 중국

## 중-미-일 GDP 성장 전망



## 2010년 중국의 지역별 M&A 분포도



## 중국의 M&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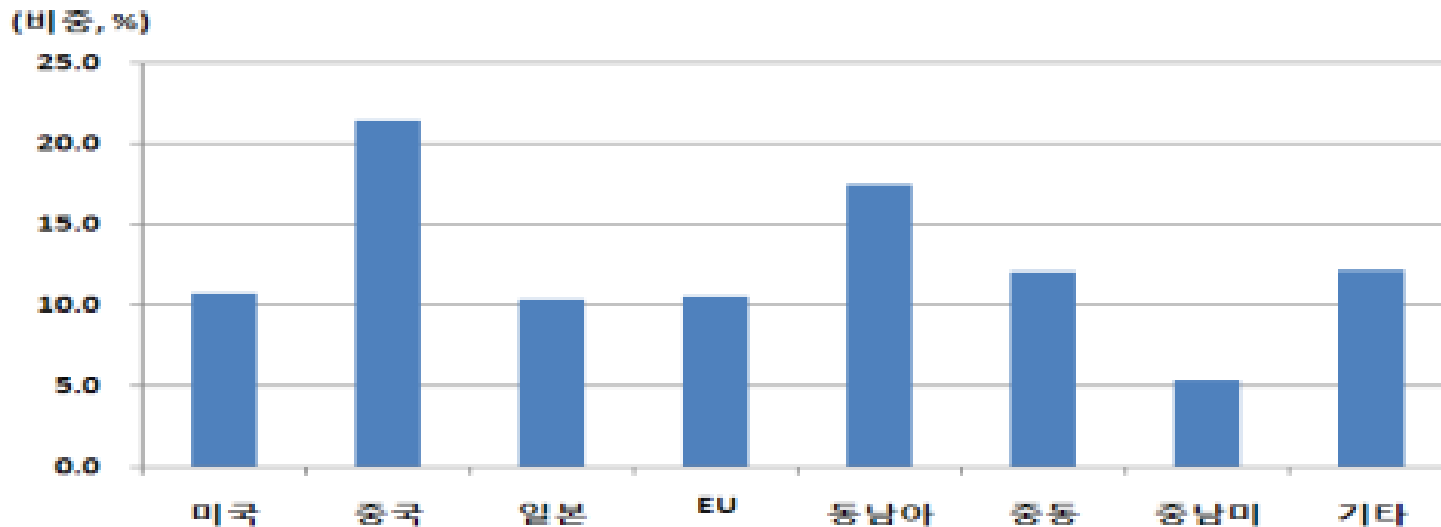
### ○ 중국은 '10년 총 188개의 해외 M&A 를 성사.

i) CNOOC(해양석유공사)는 31억불에 아르헨티나 Bidas 지분 50% 를 인수하였는 바, Bidas 는 멕시코만 유정 누출에 시달리다 BP가 매각한 Pan American Energy("PAE") 지분 60% 를 보유. 이로서 CNOOC는 한 번의 인수합병을 통해 효과적으로 PAE 및 Bidas 두 회사를 지배하게 됨.

ii) 런던의 명물 택시 Black Cab 의 제조사 "Maganese Bronze"는 스웨덴 자동차사 VOLVO 를 인수한 상하이 자동차 회사 "지리(Geely)社" 를 주요 주주로 영입하였고,

iii) 런던의 신흥 카나리 워프(Canary Wharf) 금융특구를 경영하는 Songbird社 의 3대 주주는 이미 CIC 가 자리 잡음.

## 우리나라의 국가별 무역규모 비중(2010)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의 대중 교역량 > 한국의 대미·대일 교역량 합계**

\*2010년 말 기준 으로 1,884억 달러(수입 715억 달러, 수출 1168억 달러)

##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세가지 화두

- 첫째, 내수 및 소비로의 정책전환에 따른 “Mega Market China” 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무엇인가
- 둘째, 수출경쟁국으로서의 중국이 주는 지속적 위협은 무엇인가
- 셋째, 위안화(RMB)의 국제화가 가져오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

중국의 성장 및 발달단계에서 어떠한 호혜적 기회가 있는지 발굴하여, 아직 가시지 않은 금융위기의 외생적 환경에도 향후 10년, 그 이상을 견뎌낼 버팀목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과제.

## 위안화(RMB)의 국제화가 가져오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

(1) 위안화(RMB) 국제화는 RMB의 강세 추세와 동행한다고 할 때,  
전례 없는 원화(KRW)의 강세압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KRW 이 美 달러화 대비 25~30% 강세의 이른 경우를 상정한 Stress Test 및  
이에 근거한 철저한 단계별 대비가 필요.

(2) 중국에 대해 몇 안되는 의미있는 무역흑자국인 한국의 입지를 살려,  
현재 홍콩시장에 맞먹는 위안화(RMB) Hub로의 적극적 설계가 필요한지,  
동시에 위안화(RMB) 무역결제가 중국에게 주는 이익과  
그에 상응하여 한국경제가 요구할 수 있는 Check List는 무엇인지 검토 필요.

(3) 위안화(RMB) 국제화 추세를 대비한 우리 경제의 위안화 자산(RMB Asset)에 대한  
획득전략 검토 필요.



## 위안화(RMB)와 원화(KRW)의 최근 1년간 정합도 : 높은 正의 상관관계





# RMB 국제화의 진행 단계

Local 통화가 국제화 되기 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바, RMB는  
현재 무역결제 다각화를 주안점으로 점진적 국제화 진행

- 1단계 : RMB 무역결제 다각화 확대
- 2단계 : 역외 RMB 허브 구축(싱가폴/홍콩/런던)
- 3단계 : RMB 경제권 구축
- 4단계 : RMB 자본결제 확대
- 5단계 : RMB 국제화

## Planning

- 주요 issue 인지
- '80년대 일본이 추진한 엔화 국제화의 장단점 분석

## RMB 무역결제

- '09.7월 4+3 제도를 통해 상하이, 광저우외 4개 도시와 홍콩/마카오/ASEAN 에 RMB 무역결제 허용
- '10. 6월 RMB 무역결제 가능 지역을 20개 성시로 확대

## 역외RMB Hub 구축

- 홍콩(1차 RMB Hub) : '09년 7월 최초의 덤섬본드 발행
- 싱가포르: 제2의 RMB 허브
- 런던 : RMB 선물환 시장 개설 검토
- IMF SDR 에 RMB 편입 합의

## RMB 경제권 구축

- Sino-아프리카
- Sino-라틴
- Sino-아세안

## 자본결제

- 자본자유화
- RMB 외환시장 (현물/선물시장/파생)

## RMB국제화

- RMB 의 국제기축통화
- 자본 및 무역거래의 RMB 완전 태환

- ◆ '11.3 RMB 무역결제 중국전역으로 확대(현 67,300개 지정기업)
- ◆ '11.8 위안화 외국인 직접 투자 및 위안화 적격외국인 투자자(QFII)방식 도입계획 발표(중국 지도부 홍콩 방문)



- 2008년 중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결제 통화비중은 달러화가 97%인데 반해 위안화는 0.4%에 불과(무역협회)
- 중국의 한국 국채 투자 급증  
(’09년 말 1조 8천 7백억, ’10년 말 6조 5천 6백억, ’11년 말 9조 2천 9백억, 잔액 기준)

### 중국의 고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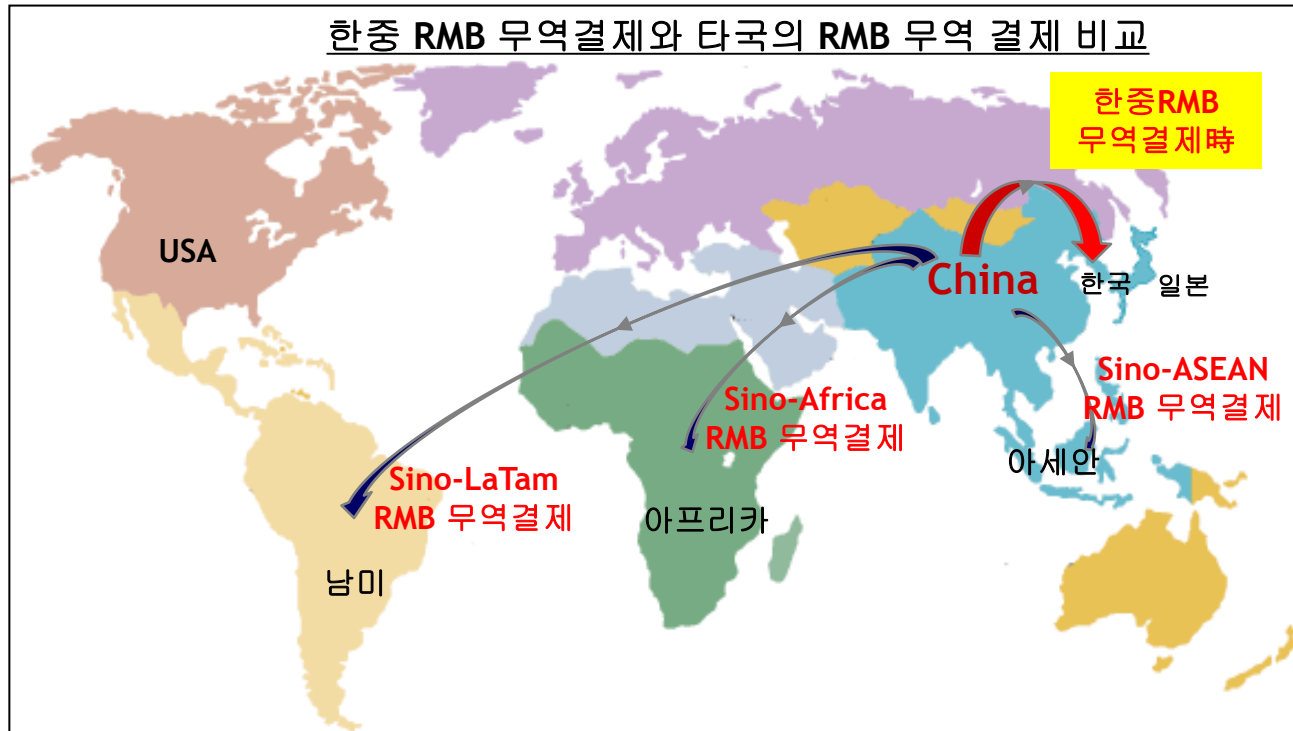
- 수출 초과국인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는 동시에,
- 결국에는 약세로 돌아설 달러표시 자산 및 막대한 외화보유액 유지에 대한 부담
- 85년 플라자 합의, 97년 한국 외환위기 등 반면교사 삼아 단계적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및 새로운 역외 허브 조성의 필요

### 우리의 고민 :

- 한국의 국제금융역량제고
- 민간의 외환거래비용 절감과 환Hedging시스템 강화
- 외화보유자산의 가치 유지 및 증식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제금융환경변화와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 추진해 왔는가**

## RMB 국제화와 한·중 관계



### 중국의 입장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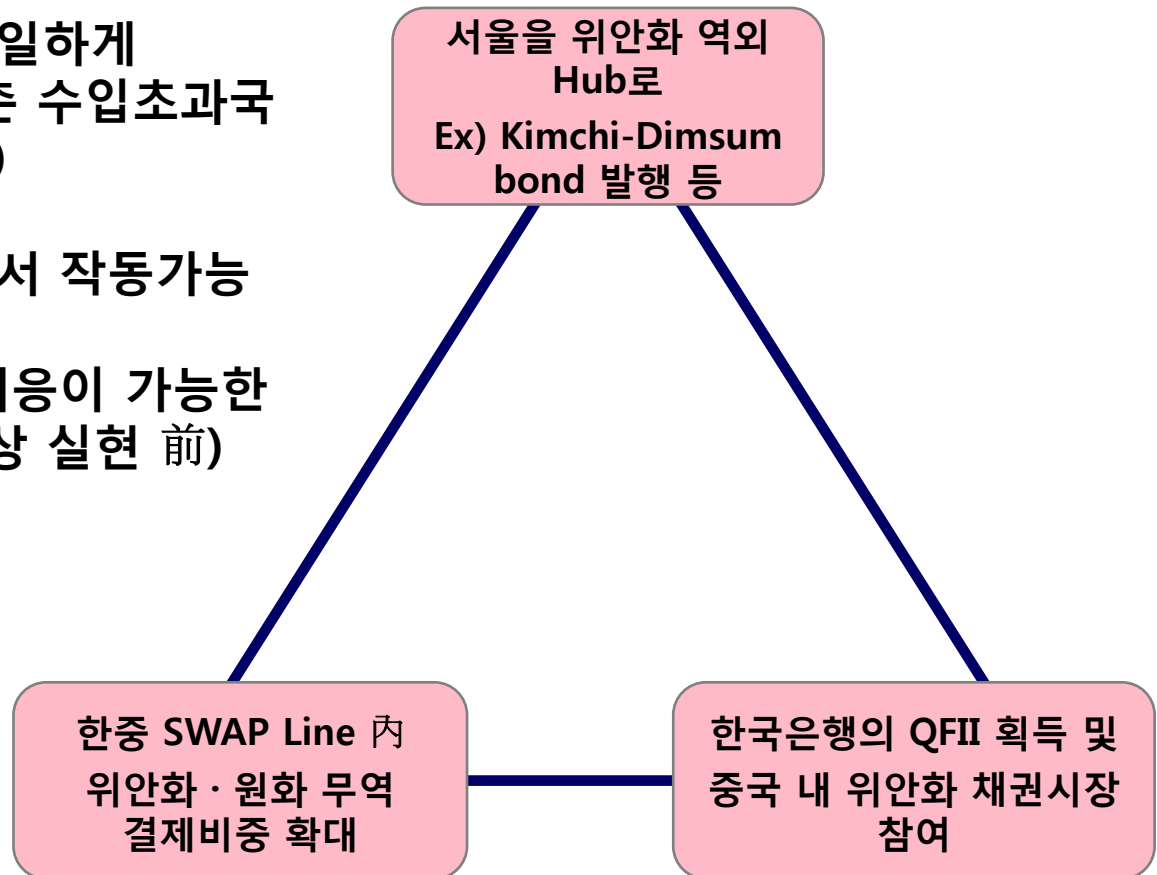
상당한 의미의 무역적자국인 한국과 맺게 되는 협약으로 이를 통해 몇 안되는 RMB 대외 순지불(역외송출) 흐름을 구상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

잉여 RMB 가 존재하게 되어 이를 RMB 대출재원으로 쓰거나 RMB 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제언

-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의미 있는 무역량을 갖춘 수입초과국 (위안화 Out-bounding)
- 포괄적 접근만이 시장에서 작동가능
- 지금이 한국의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시점 (위안화 절상 실현 前)



# RMB 역외허브의 개념과 조건

## RMB 역외 허브 :

역외소재 잉여 위안화(RMB)가 일정기간 머무를 투자기제 및 필요시 신용을 제공

- ▶ 현재 시범적으로 위안화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의 경우, 역외 RMB 예금량 증가 및 중장기적으로 투자될 DIMSUM 본드 시장형성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여짐.
- ▶ 최근에 싱가포르와 런던이 '제 2의 위안화 허브'로 논의되고 있음

\*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국내기업의 대중국 무역 위안화 결제에 대한 제약은 없음  
그러나 중국의 자본시장 자유화 정도가 낮고 위안화 운용 수단도 마땅치 않은 점,  
위안화 유동성이 낮아 거래비용이 비싸고 환리스크 hedge 수단도 부족한 점,  
잉여 RMB를 활용한 역외 Bond 시장 미비 등이 한중 교역상 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의 걸림돌

\* 현재 한중 스왑 라인 규모 : 1,800억 위안 / 중-홍콩 스왑라인 규모 : 2,000억 위안

# RMB 역외허브의 개념과 조건

## RMB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 서울을 RMB 역외 허브로

- ▶ 연간 대중국 무역흑자를 보수적으로 300~500억불로 산정하였을 때, 미미한 교역량을 가진 아프리카와 남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RMB 및 KRW 무역결제 확대와 RMB Hub 의 구축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만 할 사안이고 한중 경제관계에 중대한 Turning Point 가 될 수 있음.
- ▶ 한국이 Major Currency 에 대한 Trading Hub 가 될 수 있다면 국부의 증가와 더불어 주요 통화의 이동/보관/신용창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국제금융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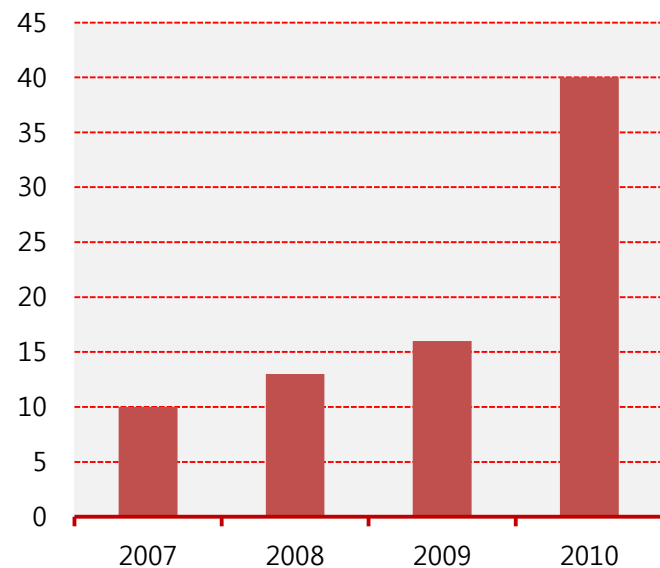
# RMB 역외허브의 개념과 조건

## RMB Hub 시범운용 현황



홍콩 DIMSUM본드발행 규모

RMB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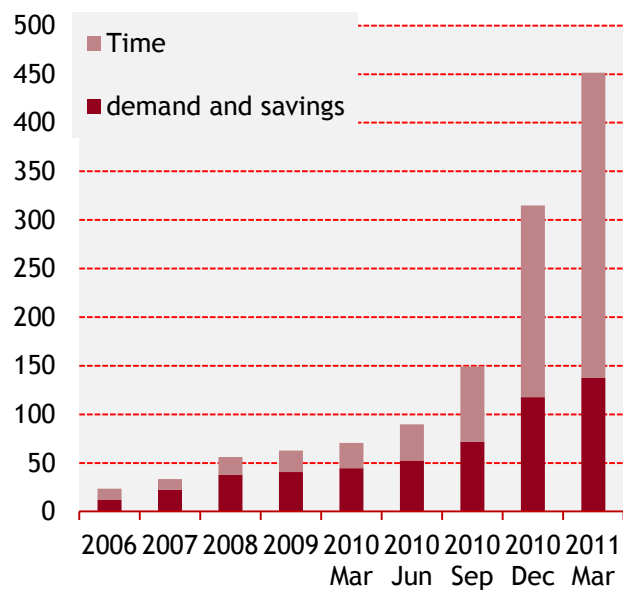
자료: Moody's Investors Service(Jan 2011)

\*2011.5월말 1,250억 위안



홍콩 RMB deposit의 가파른 증가

RMB bn



자료: Bloomberg, Standard Chartered Research

\*2011.6월말 5,536억 위안

## 한국의 RMB Hub로서의 역할을 위한 조건

- (a) 한국은행에 중국 인민은행과의 **충분한 스왑 라인**이 확보되어야 하고 **위안화-원화 무역 결제 비중**은 실효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 (b)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이 RMB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QFII)** 쿼터를 부여 받고
  - (c) **RMB Deposit**과 **DIMSUM Bond** 발행이 한국 역내에서 **가능토록** 하는  
("Kimchi-Dimsum Bond" : 한국 내에서 발행되는 RMB 표시 채권 등) **법적 토대**와 **합의**가 양국간에 선행되어야 함.
- 
- ▶ 우리나라가 중국과 RMB 무역결제 및 Hub 구축을 논의함은 양국간의 교역량과 무역수지를 감안할 때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상징적으로 합의하여 왔던 국가들과는 그 차원과 기초단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중국 측의 우호적 검토 가능성**).
  - ▶ 최소 미화 100억 불 이상의 QFII 쿼터가 한국에 주어져야 합리적이고 중국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는 핫머니 성격의 USD sell-> RMB Buy의 구조가 아니라 RMB 수취(무역수지)-> RMB Investment(자본수지)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구현.

**한중 정부 및 중앙은행간 포괄적 · 호혜적 협의 필요**

# 한중 경제협정의 새로운 접근 방법

## ▶ 한중 FTA 진행상황

- 2005~2007년 민간공동연구를 거쳐 2007~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등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논의
- 2011년 5월 말 최중경 現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국 상무부를 방문하여 '제7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열어 한-중 FTA 등 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
- 한국은 WTO 양해안보다 더 개방된 수준의 FTA 체결을 원칙으로하는 반면, 중국은 큰 경제규모에 비해 산업의 고도화가 낮은 이유로 상품 협정 중심의 낮은 단계의 FTA를 선호하며 민감 품목 처리를 둘러싼 양국의 첨예한 의견 대립 존재

## ▶ 주요 쟁점사안

한국	중국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조기 관세 철폐	농수산물, 기계, 철강 등 경공업, 노동집약적 제품 시장 개방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전문인력시장, 교육서비스 한의사 등 전문직 서비스 개방
투자자 내국민 대우 보장 및 기술이전 의무 부과 금지	동식물 검역 절차 및 제도 개선
정부조달시장 개방	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해제)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 완화	개성공단 인정 불가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	
지방정부 협정 이행 보장 등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한중 경제협정의 새로운 접근 방법

## 답보상태의 한·중 FTA, 홍콩·대만·싱가포르의 경우

- ▶ 국가차원의 한-중 무역협상은 2005년 이래 민간공동연구, 2007년 이래 산관학 공동연구 등 지난 6년간 자유무역협정(FTA)를 기본 프레임으로 한 경제협정 논의에 묶여 답보상태. 한국 내에서는 중소 제조업 및 농축산어업의 큰 피해 우려.
- ▶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수준의 경제협력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결속이라고 할 때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FTA(Free Trade Agreement) 순으로 그 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 그동안 홍콩, 마카오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대만은 양안경제협정(ECFA),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별 입지를 달리한 합의수준을 중국과 도출하여 발빠르게 협력관계를 공식화하고,

첫째, 중화경제권 결속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의 집단방어 체제 구축

셋째, 해당국의 대내 정치적 이슈 안정화 등의 실익을 구현해 왔음.

### FTA 프레임 탈피 및 중국 31개 지방정부(성)에 대한 차별적 접근방식 검토

- ▶ 특히, 차이완(Chiwan)이라는 용어를 낳은 대만과 중국간의 ECFA 는 부분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산업별 협력 및 갈등관계와 동일한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1차로 FTA 프레임과 비교하여 개방과 통합의 폭을 줄이고 실질적 협력의제로 축소하여 합의, 2차로 추후 필요시 FTA 단계로의 전환을 함축하고 있는 특징을 지님.
- ▶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 및 시장이 결합,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연합경쟁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전해지는 위협은 상당할 수 있음.
- ▶ 이에 대중국 무역협정에 관하여 명분을 다소 낮추고 실익을 높이는 관점에서

첫째, 국가차원의 한-중간의 경제협정 단계를 FTA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2009년에 체결된 한국-인도간의 CEPA 단계 혹은 대만-중국의 ECFA 로 혹은 CEPA 와 ECFA 의 중간단계 정도로 낮추어 검토하고,

둘째, 경제이슈에 관한 지방자치권이 보장된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인 31개 성/직할시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통해 이행 단계의 호혜적 실익을 추구함을 제안.

이는 대만의 ECFA 가 형식은 국가차원의 협정을 취하나 실질은 자국의 최대 투자지역인 광둥성(廣東省)과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후젠성(福建省)을 핵심 협상권역으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전례가 됨.

## 한국은 중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종합적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 한국의 대중 교역량 > 한국의 대미·대일 교역량 합계, RMB 국제화 진전

첫째, 작년말 기준, 대중국 교역량은 '92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대인 1,800억불(중국측 통계로는 2,000억불)을 초과.

둘째, 중국은 한국에게 단일국으로 최대 무역흑자 파트너로서 총교역량의 규모는 대미·대일 교역량의 총합계를 상회.

셋째,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에 저임금을 타겟팅한 Low-Tech 기업은 Exit가 불가피하고, 중국의 새로운 소비패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에 따른 신규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시스템 점검 필요.

넷째, 최근의 금융 헤게모니 재편, RMB 국제화, 중국의 한국국채 구매 증가 등의 전례없는 중대사안이 점증하고 향후에도 그 중요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대중국 미래전략 점검

## 對중국 정책 시스템의 전면적 Upgrade 포함, 미래전략 재검검 필요

- ▶ 정부 다수의 부처내 분산되어 축적되어온 중국정책 관련 정보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재정비하고,
  - (1)특히 위안화(RMB)의 국제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일본 JPY 국제화/EURO 화 출범시와 공통점 및 상이점 등 Historic Analysis 를 통한 대응책 마련과,
  - (2)중국 경제 정책의 변화 및 민간의 대중국 투자 변화 양상 대응, 적절한 한중 경제협력 시스템의 구축 등 중장기 Action Plan 수립 등을 목적으로
- ▶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부 내에 가칭 “대중국 미래전략 위원회” 신설을 제안.